

난치병, 소아암

현재 어린이의 사망원인으로 제일 많은 것이 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두번째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와 같이 소아 암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라 생각되어진다.



김 병 수

과거 1950, 60년대에는 소아 암을 앓게 되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질병(불치병)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된 현재에는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완치가 가능한 병(난치병)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어린이가 꼭 죽어야만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과거에는 결핵이나 암에 걸리게 되는 줄거리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와같은 질환대신 사고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어울리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

로 이해된다.

그러나 의학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많은 수에서 아직 소아 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과연 어린이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까지도 받게 되는 때가 있다.

앞으로 소아 암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형식을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소아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는가?

암이란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 중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이상 세포(미분화세포)가 과잉으로 늘어나서 생기는 것으로 어린이에서도 이와같은 비정상적인 증식이 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2. 소아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아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흔히 소아 암을 진단받은 어린이

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친가족 혹은 외가족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암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나 암은 부모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전으로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어린이에서 생기는 암은 어떤 한가지 원인이라기 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병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방은 불가능하다.

3. 소아에서 생긴 암은 치료가 가능한가?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환의 반 이상이 아직 원인조차



소아암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병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구자들의 노력으로 치료는 크게 발전되어서 현재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

더욱이 소아에서 생기는 암은 성인에서 생기는 암과 비교하여 치료에 반응이 좋고 치료효과가 훨씬 좋다. 그러므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완전히 치료되는 예가 많다.

4. 소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암이 생기는가?

소아에서 발생하는 암의 종류는 성인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많다. 물론 공통적으로 생기는 암도 있으나 이런 경우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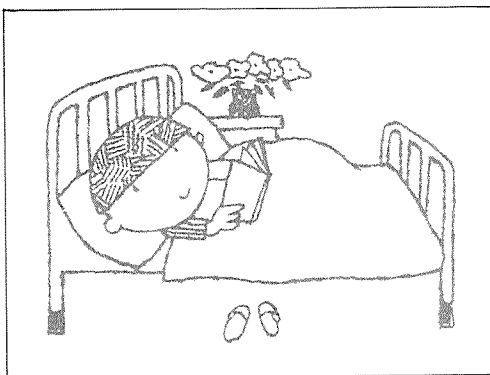
우선 성인에서 많은 암은 위암, 간암, 자궁암, 폐암, 유방암 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암은 어린이에게는 매우 희귀하다. 왜냐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소아 암의 대부분도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원인을 모른다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학에 종사하는 수많은 의학과와 연

하면 성인에게서 많이 생기는 암들은 환경적 요인(즉, 자극성 있는 음식, 간염, 파음, 담배, 무절제한 성생활 등)에 의하여 생기나 어린이에서는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소아 암의 치료 성과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종 항암제의 개발 및 의학의 발전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조기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에서는 ①백혈병(전체 소아 암의 40%를 차지한다. 혈액과 골수검사로 진단되어진다. 항암제로 장기간 치료하여 완치가 가능하다.) ②뇌종양(수술적 제거와 방사선치료를 하여주며, 항암제도 같이 투여하여 준다.) ③악성 림프종(림프조직에 생기는 암이다. 림프절이 갑자기 커지게 된다. 항암제로 치료한다.) ④월릉종양(신장에서 생기는 암이다. 수술제거와 항암제, 방사선치료를 하여 준다. 완치율이 높다.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70% 완전치료 가능하며, 신장에 국한된 경우에는 90%에서 완전 치료된다.) ⑤신경아세포종(신경조직에서 생기는 암이다. 조기 진단되면 치료율이 높으나 진행된 경우는 치료가 힘들다.)의 5가지 많이 생기는 암이 대표적이다.

소아암은 성인의 암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다.

5. 소아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

현재 국내의 소아 암 치료도 크게 발달되어 인력, 장비나 약제 등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으나 아직도 치료성고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조기 진단이 안되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전문기관을 찾게 되어 완치 가능한 시기를 놓치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 가능한 소아 암 환자가 진단이 늦어져 암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다행히 항암제를 투여하여 치료가 되는 도중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암의 조기발견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은 항상 소아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이아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소아과 전문의에게 보여서 빨리 진단될 수 있게 하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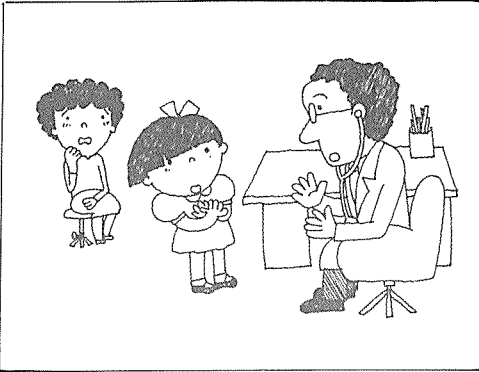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 어린아이에게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로는 출혈, 창백, 가쁜 호흡,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옴. 뼈나 관절의 통증, 장출혈, 잦은 구토나 두통호소, 사지마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열이 계속되거나 체중감소, 지속적인 설사, 성장장애, 피로, 권태감 등이 있다. 또한 몸의 어느 곳이든지 발생하는 모든 덩어리는 일단 암의 가능성을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

위와같이 일단 의심이 되면 곧바로 소아과 의원으로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아이도 정기적인 검진을 꼭 요한다. ‘대단한 것이 아니겠지’ 혹은 ‘나의 아이에게 그런 나쁜 병이 걸릴리가 없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소아 암의 치료


소아에서 생긴 암의 치료원칙은



**소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잡하여 소아 암을 전문으로 하는 소아과 의사 뿐만 아니라 외과, 치료방사선과, 병리과 등 여러 과 의사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위에 기록된 치료방법을 적절히 병용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문인력과 최첨단 치료시설, 전문 기술이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아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아과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소아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는 사실을 믿고 소아 암을 다루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필자=연세 암센터 원장)